

정부, 제주지역 기초연금 탈락자 외면

지가상승 영향 소득증가없는 연금 탈락 속출
수년째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요청 무시

지가상승으로 사실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제주지역 저소득 노인들이 매년 수백명 단위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을 지속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기초연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땀질식 처방’일 뿐 ‘선의를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되지 않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

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자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제주형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개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사업 특성에 맞는 적합자 약 300명을 선정하고 시장형 일자리 지원기준(월 24만원+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100% 지방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형 사

회복지 조사연구사업 용역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기본재산 공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별할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고려해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 공제 기준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구의 구)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이다.

하지만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17년 5월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천(1억4000만원)과 부산(1억4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에 탈락한 저소득 노인의 경우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 등의 이유로 수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탈락자들을 위한 제주형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 도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가상승에 따른 제주지역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는 2016년 777명(전체의 39.9%), 2017년 644명(34.3%), 지난해 448명(37.4%)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4.91%, 2015년 64.83%, 2016년 62.75%, 2017년 62.50%, 지난해 62.41% 등으로 정부 목표(7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추석 앞둔 농산물공판장 민족 최고 명절인 추석을 나흘 앞둔 9일 제주시농협 농산물공판장에는 소비시장에 선보일 과일들이 가득 쌓여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추석 연휴만 되면... 119 신고 ↑

지난해 592명 구급차 이용

평소보다 119신고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제주소방이 ‘비상 근무제’에 돌입한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추석연휴(9월 21~26일) 동안 555건의 구급출동이 이뤄져 592명이 병원 신세를 졌다. 이

어 교통사고 등 사고 현장 158곳에 출동해 17명을 구조했으며, 화재도 27건이 발생해 약 190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이 밖에도 병의원 안내 및 응급처치상담 106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11일부터 16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대응에 나선다.

송은범기자

“치매원인 규명·신약 개발 새 전기”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치매연구 미국특허 획득

박세필 교수 “제주흑돼지
이용 치매복제돼지 생산”



박세필 교수

제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센터가 세계 처음으로 제주흑돼지를 이용해 인간 치매 유발 유전자 3개가 동시에 발현되는 형질전환복제돼지 제작기술

에 성공해 미국특허를 취득했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는 ‘3개(APP, PSI, Tau)의 인간 치매유발 유전자’가 발현되는 치매복제돼지 생산 관련 미국특허가 등록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과제인 ‘우장준프로젝트’ 일환인 ‘알츠하이머 질환모델 돼지개발과 후성유전체 연구(연구책임자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장)’로 수행됐다.

이날 취재진을 상대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치매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련의 실험 과정을 보여준 박세필 교수는 “전기융합 기술을 통해 제주흑돼지 암컷성체 난자에 인간의 치매유전 인자를 집어넣은 세포를 넣어 임신과 출산까지 성공시킨 것”이라며 “이렇게 태어난 치매돼지는 전형적인 인간의 치매현상을 드러내 유전학적·행동학적으로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걸 학문적으로 증명해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세계적으로 유전자 연구에는 미니머치피그가 많이 사용돼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지만 제주흑돼지는 아직 어느곳에서도 특허가 출원되지 않은 제주의 토종 자원”이라며 “이번에 취득한 제주흑돼지 연구결과를 치매연구에 활용한다면 제주도와 제주대가 100% 특허 수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저명국제학술지 ‘PLOS ONE’ 2017년 6월호에 게재됐으며, 2017년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2019년 6월에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특허법인의 가치 평가 결과 향후 기술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2024년부터 9년간 4조40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표성준기자

‘카니발 난폭운전’ 가해자 영장 기각

끼어들기에 항의하자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른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해·재물손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33)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

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도 수집된 상태”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중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공터로 던진 혐의도 있다.

송은범기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부터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임신부 및 만60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부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조상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엌 사랑으로

바다를 지배하는자가 무역을 지배한다!

해양영토 전국 25% 제주

국제해양관광과 제주항만물류를 선도할
제주신항만 개발을 적극 환영합니다!

제주시지부 지부장 전 경 탁

서귀포지부 지부장 양 은 주

성 산 지 부 지부장 김 철 남

한림지부 지부장 이 태 석

안덕지부 지부장 정 용 철

애월지부 지부장 고 현 배

추자분회 분회장 박 종 빈

제주특별자치도 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전 경 탁